

좁 물들이는 사람 몸에 향기 배이듯...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5> 7대원통(七大圓通)-2

7대란 지·수·화·풍·공·견·식의 작용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갖가지 수행 방법이 다양히 제시된다. 6진, 6근, 6식, 7대 원통을 모두 들은 부처님은 문수보살에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며 물으시고, 방편법을 펼친다. 7대 원통을 살펴보고 세속의 오락을 씻어내는 계기로 삼아봄이 어떨까. <편집자 주>

허공장 보살
허공장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虛空藏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허공이 한량없음을 관하여 삼마지에 들어가 오묘한 힘이 원융하게 밝혀지는 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 최상입니다. 저는 여래와 함께 정광불 처소에서 무변신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에는 네 개의 큰 보배구슬을 들고, 시방의 먼지처럼 많은 부처님 세계를 비취 밝히니, 모두 허공으로 변하였습니다. 또 제 마음에 크고 둥근 거울이 나타나서 열 가지 미묘한 보배광명을 비추고 시방의 온 허공의 경계를 두루 비추니, 모든 높이 솟은 세계들이 거울 속에 들어와서 제 몸으로 스며들었으나, 몸이 허공과 동일하여 서로 걸리거나 막히지 않았사옵나니. 이렇게 걸림 없는 몸으로 티끌처럼 많은 국토에 거침 없이 들어가서 널리 불사佛事를 행하며 순조롭게 따르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었사옵나니.

이 크고 신비한 힘은 제가 자세히 관찰하니 4대는 의지할 곳이 없고 허망한 생각으로 생멸할 뿐, 허공과 둘이 아니며 불국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동일한 이치를 밝혀서 무생법인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허공의 끝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삼마지에 들어가서 묘한 힘을 원만하게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나니.

我與如來 定光佛所 得無邊身 爾時手執 四大寶珠 照明十方 微塵佛刹 化成虛空 又於自心 現大圓鏡 內放十種 微妙寶光 流灌十方 盡虛空際 諸幢王刹 來入鏡內 涉入我身 身同虛空 不相妨礙 身能普入 微塵國土 廣行佛事 得大隨順 此大神力 由我諦觀 四大無依 妄想生滅 虛空無二 佛國本同 於同發明 得無生忍 佛問圓通 我以觀察 虛空無邊 入三摩地 妙力圓明 斯爲第一

미륵 보살
미륵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죄었다.
彌勒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에게는 시방세계가 오직 유식을 관하는 것이 최상입니다. 식심이 원융하게 밝혀져 분별과 망상이 소멸된 상태에서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청정한 모습에 들어가 온갖 분별에서 벗어나 무생인을 얻어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입니다.

저는 지난 옛 미진경의 일을 생각해 보니, 일월등명 부처님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그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으나, 마음에 세상의 명예를 중히 여겨 귀족들과 사귀기를 좋아하였사옵나니.

이때 그 세존께서는 저에게 '유식식정을 수행하여 삼마지에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사옵나니. 여러 겁을 걸쳐 이 삼매를 닦으면서 향하의 모래처럼 많은 부처님을 모시는 사이에,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마음이 말끔히 사라져버렸사옵나니. 그러다가 연등불께서 세상에 나오셨을 때, 저는 비로소 무상한 묘원식삼삼매를 성취하여, 온 허공과 여래와 국토의 깨끗함과 더불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모두 제 마음이 변화하여 나타난 경계임을 알았사옵나니.

세존이시여, 저는 이와 같이 오직 식심뿐이기 때문에, 식의 성품이 한량없는 여래를 유출시키는 것을 알았사옵나니, 지금은 '다을 부처님의 자리를 이으리라'는 수기도 받게 된 것이옵나니.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시방이 유식임을 자세히 관찰하여 식심이 일체법을 원만하게 밝히고, 원만하게 진실한 성품을 성취하여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을 멀리 여의어 무생법인을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나니.

我憶往昔 經微塵劫 有佛出世 名曰月燈明 我從彼佛 而得出家 心重世名 好遊族姓 爾時世尊 教我修習 唯心識定 入三摩地 歷劫已來 以此三昧 事恒沙佛 求世名心 歇滅無有 至然燈佛 出現於世 我乃得成 無上妙圓 識心三昧 乃至盡空 如來國土



그림 · 최주현

“ 허공장 보살 '허공이 한량없음 관해' 미륵 보살 '유식을 관해 시공간 초월' 대세지 법왕자 '육근 취합, 청정 수행' ”

淨穢有無 皆是我心 變化所現 世尊! 我了如是 唯心識故 識性流出 無量如來 今得授記 次補佛處 佛問圓通 我以諦觀 十方唯識 識心圓明 入圓成實 遠離他及遍計執 得無生忍 斯爲第一.

대세지 법왕자
대세지 법왕자가 그가 동반한 52위보살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의 발까지 머리를 조아려 예를 올리고 부처님께 아뢰

었다.
大勢至法王子[菩薩] 與其同倫 五十二菩薩 卽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고 육근 모두를 섭수하여 청정한 생각이 지속되어 삼마지에 드는 것을 수행의 계기로 삼는 것이 최상입니다.

저는 지난 옛 갠지스 강의 모래와 같은 겁의 일을 생각해 보니, 그때 무량광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셨을 때, 열 두 여래께서 1 겁(劫)마다 나오셨사옵나니. 그 마지막 초

일월광부처님께서 저에게 열불삼매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한 사람은 아득히 있고 있다면, 이러한 두 사람은 만나도 만난 것이 아니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두 사람이 서로 기억하여 기억하는 생각이 깊어지면 태어날 때마다, 형체를 그림자가 따르듯, 서로 어긋나지 않으리라. 시방 여래께서 중생을 생각하여 가엾게 여김은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은데, 만일 자식이 달아나 버린다면,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는 자식의 마음이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을 때, 어머니와 자식은 여러 생을 지날지라도 어긋나 멀어지지 않으리라.

만일 중생이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여 열불삼매를 행하면, 현재 또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님을 뵈거나, 부처님과의 거리가 멀지 않으며, 방편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이 열리느니라. 마치 향을 물들이는 사람이 몸에 향기가 배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향광엄장이라고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본래 첫 수행할 때 열불삼매의 마음으로 무생법인에 들었사옵나니, 지금은 이 세계에서 열불삼매의 사람을 거두어 정토(淨土)로 돌아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에는 따로 고를 것 없이 여섯 감관을 모두 거둬들여 청정한 생각을 계속 이어 삼마지를 얻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나니.

我憶往昔 恒河沙劫 有佛出世 名無量光 十二如來 相繼一劫 其最後佛 名超日月光 彼佛教我 念佛三昧 譬如有人 一專憶德 二人相憶 二憶念深 如是乃至 從生至生 同於形影 不相乖異 十方如來 憐念眾生 如母憶子 若子逃逝 雖憶何爲 子若憶母 如母憶時 母子歷生 不相違遠 若眾生心 憶佛念佛 現前當來 必定見佛 去佛不遠 不假方便 自得心開 如染香人 身有香氣 此則名曰 香光莊嚴 我本因地 以念佛心 入無生忍 今於此界 攝念佛人 歸於淨土 佛問圓通 我無選擇 我以無擇 都攝六根 淨念相繼 得三摩地 斯爲第一 大佛頂萬行首楞嚴經卷第五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한다>로 번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연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병신육갑을 하면 천당 가고, 병신칠갑을 하면 지옥 간다.

丙辛六甲 病神漆甲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독서!
민족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독서!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위한 필독서!

나 한사람의 방관도 깨닫고
다른 이웃의 방관을 깨닫게 합시다.

김종성 씀 / 값 17,000원(전면 컬러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다량주문(010-2465-1357)